



비가 되고
거본에 실려
다시 피는 봄

안산시 시정소식지 | NO. 439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부활'의 소망
달원교 교정의
재스목련(오바마 기증)



안산시, 마이스산업 집중... “지역특성 반영, 시너지 효과 기대” ‘기업회의와 휴양의 도시’ 추구, 워크숍·학술대회 3건 잇따라 유치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안산시의 노력이 좋은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한국MICE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업회의와 휴양의 도시, 안산’을 추구하고 있는 마이스산업의 경우 잇따라 3건의 워크숍과 학술대회를 유치하며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 동안 안산 소재 호텔스퀘어에서는 전국 공장설립 업무담당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행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실무자 200여 명이 안산을 찾았다. 이들은 안산에 체류하는 동안 숙박비는 물론 식대와 기념품 구입, 차량임차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들 동안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안산시와 한국문화인류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문화인류학회 2017년 봄 학술대회가 열린다. ‘마주침의 문화정치: 이주, 광장,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안산시 관내 현장투어를 포함, 원곡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학생 현장학습도 예정돼 있다.

이어 5월 25일, 26일 이들 동안은 안산 호텔스퀘어에서 한국냄새환경학회가 주최·주관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냄새환경학회는 냄새환경에 관한 학문발전과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냄새환경에 관한 경영, 계획 및 정책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곳으로 480명의 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약 12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9월에 안산에서 개최되는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ESTC)’ 홍보와 안산의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5월 ESP(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총회와 9월 PNLG(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마이스산업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자신감을 갖춘 바 있으며, 올해 9월에는 아시아 도시 중 최초로 ESTC를 개최할 예정으로 약 1천여 명의 외국 대표자 및 국내 관계자들이 참가, 약 16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특히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일반 관광에 비해 1.5배의 경제효과가 높은 마이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안산시의 지역 특성을 살린 고유한 포럼이나 행사를 적극 유치하며 대형화 보다는 소규모, 전문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100명 이상의 규모로 1박2일 이상 안산 관내에서 행사나 학술회의를 개최할 경우 평균적으로 행사비의 약 10% 내외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마이스산업과 (031-481-3433)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전봇대·전선 없어진다 원곡로 가로환경 개선... 1단계 1,340m 구간 40억 투입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지중화사업계획 1단계

-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현황
 - 지역: 2000여 가가 밀집한 지역 (3.3. 호남문화마을 특구 Special-Use Zone)
 - 형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Multicultural Village Special Zone)
 - 특성: 밀집 (안산시 인구밀도 10배 이상)
 - 인구: 12,000명 (2017년 기준) - 1인 1세대
 - 총사업비: 235.9억 원
 - 주요사업: 1. 전선·전봇대 지중화 사업 (40억 원)
 - 주요사업비: 53,778만 원
- 2017년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 개요
 - 사업비: 40억 원 (예산액 1,200%)
 - 사업구분: 전기·통신
 - 사업내용: 전선·전봇대 지중화 및 보도 확충 사업
 - 사업기간: 2017년 4월 ~ 2018년 12월
 - 사업효과: 1. 안전성 향상 (낙선사고 예방) 2. 미관 개선 (도시정비) 3. 주민 불편 최소화 (공사기간 단축)

4월 5월 6월 12월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지중화사업 1단계 착공 예정 착공 예정 착공 예정 착공 예정

안산시는 4월 10일 다문화지원본부에서 한국전력 및 7개 통신사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안산다문화마을특구 1단계 전선 지중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원곡로 지역의 전선 지중화를 통한 가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전기·

통신 지중화공사에 따른 사업시행 절차 및 공사비 부담과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산시가 지난해 6월 한국전력 지중화사업에 공모해 추진되는 1단계 사업은 원곡로 1,340m구간에 총사업비 40억 원이 들어가며, 사업비는 안산시와 한국전력 및 7개 통신사가 5대5 비율로 투입한다. 공사기간은 올해 6월 착공,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다문화마을특구의 전선 지중화사업은 도시재생의 모범이 되는 사업”이라며 “안산시와 함께하는 한국전력과 7개 통신사에 감사드리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및 기관이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단계 공사 관련 올 6월경 2018년 한국전력 지중화공모사업에 응모 예정이며, 매년 1km내외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의 기초기반시설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서 사전실무협의를 통해 공사로 인한 통행안전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 문의 : 안산시 다문화정책과 (031-481-3905)

나들가게 지원사업, “성과 있었다” 1주년 평가… 매출 28% 증가, 큰 효과



안산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안산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1주년 사업추진 성과에 따르면 사업 참여 골목 슈퍼마켓의 매출액이 사업추진 이전과 비교해 약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방문 고객수도 26% 증가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되는 것으로, 안산시 지역 내 골목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점사업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나들가게 점주들을 대상으로 경영대학을 개최해 73명이 수료했다. 이를 통해 ‘나들가게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으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대표 지원사업인 7개의 모델 가게, 15개 점포에 대한 시설 개선을 비롯해 73개 점포에 상품 재배열 등 9개의 지원 사업을 추진, 골목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의 유통환경에서 골목슈퍼마켓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나들가게 협의체’를 지원해 두 차례의 공동 세일전을 개최, 약 50%의 매출증대 효과를 나타내는

등 유통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참여점포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만족 이상”이 72%로 나타났으며, “효과적 지원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도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골목 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는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뿐만 아니라 점포를 찾으시는 많은 시민들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남은 2년 동안의 사업기간 동안 골목 슈퍼마켓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 공동 세일전 개최 등 각종 할인행사 등을 통해 점포를 찾으시는 시민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 (031-481-2829)

INTERVIEW

“공동 세일전과 경영대학 통해 실질적 도움 얻었다”

“네트워크 형성, 함께 고민하며 돌파구 찾는 계기”



‘나들이 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 안산나들가게협동조합 이상빈 이사장을 만났다.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효과에 대해 물었다.

이상빈 이사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단언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안산시가 소상공인을 살리는 목표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전개하면서 ‘나들가게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지역 내 나들가게들이 공동 세일전을 진행하면서 현수막, 전단지, POP(매장 설치 광고) 등을 지원받았고,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특히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은 ‘나들가게 경영대학’ 과정이었다. 상품 구매 관리와 진열, 마케팅, 판매 촉진, 세무 등 가게를 이끌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도움이 컸던 것은 나들가게 점주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다.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동맹적 관계’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더 했다.

Q ‘안산나들가게협동조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동맹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법인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협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판매할 물품을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싸게 팔면 소비자와 점주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이런 방법으로 50여 개의 점주들이 힘을 합쳐 ‘안산시 나들가게 그랜드 세일’을 2회에 걸쳐 진행했다. 당연히 매출도 올랐지만,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단골손님들께 보답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슈퍼마켓’이라는 것이 결국 동네에서는, 이야기가 모이는 사랑방 같은 곳이다. 매일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그 고마운 정을 싣 가격으로 보답할 수 있어 기뻐다.

Q 어떤 미래를 그리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에서 재배된 농수산물 채소류를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순환구조를 생각하고 있다. 안산 지역 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길 기대한다. 안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제는 함께 뭉칠 수 있고, 혼자만 아니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미래에는 나들가게 견학을 위해 안산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김희경 명예기자 kepa-korea@hanmail.net

2017. 5. 9. 실시 제19대 대선 문답풀이(1)



1.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2. 사전투표란 무엇인가?

⇨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했다. 오는 5월 4일(목), 5일(금) 양일간 실시된다.

3.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된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우편봉투에 넣어 봉합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투입하면 된다.

4. 사전투표자, 다시 투표할 수 있나?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

시화MTV 특별계획구역 '반달섬 부지' 계약 임박

4전5기... 대형할인업체 모다아울렛 단독 입찰·낙찰

市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될 것”



일명 '반달섬'으로 불리던 시화MTV 특별계획구역이 드디어 주인을 찾을 예정이다. 4전5기, 4차례 유찰에 이어 5번째 일반경쟁 입찰에서 계약이 유력시 되고 있다. 대형할인업체인 (주)모다아울렛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고, 오는 17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분양공고를 냈으며, 연 매출이 778억 원에 이르는 대형 의류유통업체인 모다아울렛이 보증금 135억 원으로 단독 입찰했다.

이번에 입찰된 반달섬은 22필지 17만9천여㎡ 5만4천166평으로 평당 감정가는 상업시설

505만 원, 주차장은 296만 원에 공고돼 분양가는 총 2천70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부지에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위락·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으며 주거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다아울렛은 이곳에 45층 5천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32층 340실 규모의 호텔을 건설할 예정이며 상업시설 30필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매립지에 분산된 공원들은 인공섬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모다아울렛은 2019년까지 총 토지금액의 50%를 분할 납부한 후 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추진하게 되며 2022년까지 토지금액이 완납되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수공의 결정에 따라 계약업체에 대한 행정 부분에 대해 지원이나 계획에 따라 협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안산시는 2013년 4월 경기도 및 일본 업체들과 투자협약을 맺고 반달섬 부지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일본 투자사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 해당 토지대금을 확보하지 못해 네 차례에 걸쳐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해 6월 일본 업체들과의 투자협약을 취소한 후 수자원공사와 함께 새로운 투자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오던 중이었다.

◇ 문의 : 안산시 마이스산업과 (031-481-3433)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⑤ Team.O(팀오)



오준혁 대표

예술, 기존의 틀을 벗어난다

올 1월 창단과 동시에 청년큐브에 입주한 창작예술 집단 '팀.오(Team.O)'의 오준혁 대표(25세)를 만나기 위해 예대캠프를 찾았다. '다사리문화기획학교', '찾습니다 디자이너들' 등 모집공고,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 모임과 공연 포스터들이 방문객을 맞는다. 벽면을 따라 모퉁이를 돌아 해리포터의 마법 승강장처럼 입구가 나타났다. 나지막이 주문을 외우자 문이 열리고, 마법 같은 예술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가슴 쿵쿵 뛰는 삶을 목격하는 순간...

어려서부터 음악프로듀서가 되고 싶었던 오준혁 대표는 고향 대구에서 상경해 예고에 진학했다. 이후 대사로만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연극에 노래가 더해진 뮤지컬의 매력에 푹 빠져 뮤지컬을 공부했다. 현재 서울에 대 공연창작학부 예술경영과 4년차 학사학위를 밟고 있는 오준혁 대표는 연극과 뮤지컬을 아우르는 공연예술을 지향하는 창작집단으로서 팀.오를 창단했다. 서울예대에서 극작과, 실용음악과, 연극과, 예술경영과를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23명으로 꾸려진 팀.오는 기획,

작가, 작곡가, 연주자, 조명, 음향, 분장 등 프리 프로덕션부터 프로덕션 과정까지 필요한 모든 파트가 갖춰져 있어 자체 공연 제작이 가능하다.

팀.오는 오준혁 대표의 성을 딴 '오'에 Ordinary(평범한), Observe(관찰하다), Object(욕망, 목표), Only(유일한), Original(독창적인)의 머리글자 'O'를 담은 팀명으로 숫자 '0'과도 상통하는 팀명이다. 숫자 '0'은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는 창작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부터 인간이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까지 다양한 인간상과 사회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 팀.오의 궁극적 목표다.

“대중적인 것에서 한발 나아가 여러 콘텐츠를 융합하는 실험적인 공연을 시도하고, 전형적인 것에서 탈피하면서도 관객에게 위로와 소소한 행복을 전해주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싶다.”며 2006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이야기하는 오준혁 대표의 얼굴엔 결연한 목표가 차오른다.

희곡 '봄이 눈 뜰 때'를 기반으로, 기성세대의 몰이해 속에 고통 받는 십대들의 몸부림을 그려낸 '스프링 어웨

이크닝'은 기존의 뮤지컬 문법에서 벗어난 음악과 그 음악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연출로 비평과 흥행 면에서 모두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오준혁 대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신선한 충격을 주는 작품으로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두 획을 긋고 싶습니다. 한 획을 긋고, 다시 한 번, 한 획으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그 첫걸음으로 팀.오는 북한군을 소재로 한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다. 1973년 일본에서 일어난 '두 아이 납치사건'을 시발점으로 십대 후반의 북한군 소녀를 통해 비극적 현실과 분단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는 순수한 감성을 시나리오에 담았다.

“예술을 통해, 예술을 하는 실연자(實演者)부터 예술 소비자까지 모두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능동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망망대해에 도전의 배를 띄우는 젊은 창작자들, 그들이 앞을 깨고 새처럼 훨훨 날아오르기를 바라본다.

◇ 문의 : 팀오(www.facebook.com/creativeteamO)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 '2017 한·독 도시교류포럼' 성료

양국 사례발표, “시민 중심의 기억문화 형성해야” 공감

市 “기록과 기억은 우리 삶의 흔적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



안산시는 희망제작소 및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과 함께 '2017 한·독 도시교류포럼'을 진행했다. 포럼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호텔스퀘어, 대부도 등 안산시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참가자들은 행사에 앞서 안산시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와 4·16기억교실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필요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각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 포럼과 일반인 대상의 대중포럼으로 나눠 진행됐다.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목민관클럽은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됐다. 먼저 안산시 관계자가 '기억

문화 조성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기초발표를 했으며, 미하엘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反忘却)-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의 '독일 기억문화의 개요와 특징' 기조강연, 팀 레너(Tim Renner) 전 베를린 시 문화부 장관의 사례강연 및 각 지자체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우리는 기억과 기록을 연계·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안산의 여러 문화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 시청에서 확보해 나가고 있는 행정기록, 현재의 변화상을 담은 기록 그리고 시민의 기억이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보존되면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 관련 문화기관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정체성과 질서에 의해 기록을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기록물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 둘째 날인 22일에는 최근 해양생태관광 도시이자 '원전1호기 줄이기'의 모범 도시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안산시의 관광단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계적으로 최대 시설용량을 자랑하는 시화호조력발전소를 방문해 신재생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후 바다를 바라보며 산의 능선을 걸을 수 있는 대부해솔길 트레킹 코스를 함께 돌아봤다. 또한 마지막 일정으로 기억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포럼을 개최, 독일의 기억문화 및 4·16 세월호의 기억, 5·18 광주5.18의 기억 등 기억문화 사례를 발표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김윤식 시흥시장과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을 비롯해 서울 이해식(강동구), 노현송(강서구) 등 구청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 문의 : 안산시 기획법무과 (031-481-2801)

안산시, 에너지 분권을 주도하다

국회에서 '에너지정책 전환' 토론회 개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에너지전환협의회)'는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탈핵에너지정책 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지난해 12월 창립한 에너지전환협의회 첫 공식 행사로서,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정부가 지향해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장 단체인 안산시가 행사를 진행했으며, 김윤식 시흥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준표 광명부시장을 포함해 관계 공무원 및 시민활동가 200여 명이 대거 참석,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승훈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분권의 의미와 방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보다 싼 물건을 위해 대형할인매장에 갈 경우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거나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골목상권의 소규모 매장에서 살 경우 가

격은 다소 비싸지만 꼭 필요한 것만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예를 들며 “송전탑, 대기오염, 사고위험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중앙집중형 대량발전 대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는 분산형 전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에너지 촉진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부터 에너지 전환 운동을 전개한 독일 아헨(Aachen)시를 예로 들며,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 보상하는 기준가격구매제(Feed In Tariffs)의 성과와 효용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도시인 안산을 시범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 토론회에서 김성환 구청장은 70년대에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를, 이우수 본부장은 전력요금의 가격체계 개편을 주장했으며, 한재각 부소장은 “재생에너지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시스템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안산시 관계자는 당진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에너지전환협의회에 대해 소개하며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고 그를 통해 국가 정책을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전체 소비량의 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안산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수자원공사가 포기했던 사업을 시민운동으로 되살려낸 조력발전소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며 풍력, 태양광, 지력 등 지역의 자원을 골고루 활용해서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의 탈핵정책은 지방정부와 학자들의 지난한 투쟁의 역사적 산물”이라며 “우선은 당진시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이후 실무적인 모임을 지속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문의 : 안산시 환경정책과 (031-481-2887)

‘초록늑대’ 홈경기 관전기

수원FC 3:3, 아쉽지만 잘 싸운 첫 무승부 경기 부천FC 2:4 석패, “졌지만 가능성을 보았다”



(수원전)분위기 반전 절실... 소중한 승점 확보

안산그리너스FC가 9일(일) 오후 3시 와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수원FC와의 '2017 K리그 챌린지 6라운드' 홈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창단 첫 무승부를 기록함과 동시에 승점 1점을 쌓으며 2승 1무 3패로 리그 6위를 유지했다. 안산은 지난경기 부상으로 결장했던 라울이 선발로 복귀해 나시모프와 투톱을 이루었다. 초반부터 안산은 공격적으로 나서며 볼 점유율을 높여 나갔고, 결국 전반 38분 장혁진의 프리킥을 이어 받은 이인재가 헤딩골을 성공시키며 1:0으로 앞서나갔다. 5분 후 바로 수원 정철호의 패스를 이어 받은 이승현의 골로 승부를 원점에 돌려놓는 듯 보였지만, 추가 시간 안산의 나시모프가 이민우의 킬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다시 2:1로 앞서나갔다.

후반 수원은 공격적이었다. 7분 브루스와 11분 이승현의 골로 수원이 3:2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경기는 점점 난타전으로 치닫기 시작했고, 결국 후반 26분 한건용의 정확한 크로스를 라울이 발리슛으로 성공시키며 3:3 동점을 기록했다.

안산의 이흥실 감독은 “아쉽지만 지난 2패 뒤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에서의 소중한 승점 1점이다. 지난 시즌까지 클래식에서 있던 강팀 수원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쳐준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다.”라며 경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부천전)아쉽지만 희망을 본 경기

4월 1일,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부천과의 경기는 홈경기 전승의 기록을 이어가며 5할 승률

을 유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다.

경기가 시작되고 안산 9번 장혁진 선수가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골로 연결되지 못했고, 바로 위기가 찾아왔다. 전반 16분, 부천의 8번 김신이 오른발 슛으로 안산의 골문을 갈랐다. 선취골을 내준 안산은 정열적으로 운동장을 누볐지만 여러 차례 공격 기회에도 부천의 골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마무리 되나 싶던 순간, 안산의 ‘초록늑대’들이 1천5백여 관중들에게 멋진 골을 선사했다. 전반 종료 2분전 안산의 주장인 6번 박한수가 그림 같은 헤딩으로 부천의 골망을 흔들었다. 홈팀 관중들은 운동장이 떠나갈 듯 함성을 질렀다. 후반에 어이없게 추가골을 내줬다. 13분, 부천 7번 문기현 골에 이어 닐슨 주니어에게 세 번째 골을 내주었다. 스코어는 1대3. 후반 32분, 안산의 장혁진이 희망의 추격골을 성공시켰지만 그 후 불과 4분 뒤 전반전에 동점골을 넣었던 박한수가 통탄의 자책골을 기록하고 말았다. 최종 스코어 2대4. 2점차 패배였고, 안산이 최다 실점을 기록한 날이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비록 패배한 경기였지만 오히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천에 밀리지 않았고, 공격력은 충분한 수준이었다. 수비력만 다소 보완하고, 외국인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을 발휘하면 앞으로 좋은 경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축구팬은 “창단 첫 해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우리 팀이 늘 이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축구장에 온다.”며 “다행히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좋고, 골을 넣을 줄 아는 선수들이 있어서 앞으로 좋은 경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독수리, 다시 하늘 위로 날다

부상당한 멸종위기동물 구조 · 치료 후 방사

市 “시화호가 철새 서식지로서 매우 가치 있다”

목 부위에 경미한 부상을 입고 탈진한 채 발견돼 안산시의 보호를 받던 독수리가 3월 22일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 독수리는 주민의 신고로, 대부119안전센터에 의해 구조되었다가 지난 2월 13일 안산갈대습지 조류보호시설로 인계돼 건강을 회복해갔다.

독수리는 지중해 서부에서 동아시아에 걸쳐 분포하며 몸길이 98~107cm, 체중 7~12.5kg, 날개 길이 250~295cm의 대형 조류로 월동을 위해 한국을 찾아온다. 안산지역에 독수리가 찾아온 것은 작년이 처음으로 5마리 중 한 마리가 부상당했다.

안산시는 독수리의 안전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판정을 확인

했고 부상부위를 치료하며, 기력회복을 도왔다.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독수리는 대부도 대송습지에서, 번식지인 몽골과 티베트 등지로 복상하는 시기에 맞춰 방사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제243-1호)인 독수리가 시화호 주변 습지에서 5마리나 발견된 것은 시화호 습지가 철새 서식지로서 매우 가치 있는 생태습지로 거듭난 것이라며, 야생동물과 공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종인 안산시 환경정책과 실무관은 “처음에는 먹는 걸 거부해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 먹이를 주기도 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먹이를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건강하게 다시 안산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산시와 자연이 공생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대기업 포스코건설,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사업계획서 제출 5월초 협상대상자 선정 후 속도감 있게 진행 예정



안산시민의 숙원인新安산선 복선전철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2단계 평가에 2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접수, 사업시행자 선정에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안산시는 1단계였던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3월 23일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접수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新安산선은 그동안 노선 유치를 위한 지역갈등, 노선 연장 검토, 재정 부담으로 인한 민간투자 추진 등으로 지연되고 있던 중 민간과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비티오알에스(BTO-rs : Build Transfer Operate risk sharing)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해 10월 관련 계획을 고시해 2개 컨소시엄으로부터 1단계 사전자격심사를 접수받았으나, 자격요건 미달로 모두 탈락해 재고시해야만 했고, 올해 2월 2개 컨소시엄 모두 1단계 평가를 통과했다.

관련 업계는 추정 사업비가 3조9천여억 원에서 3조4천여억 원으로 5천억 원 이상 줄어든 사업비와 수요 등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사업제안서 접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新安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30일 동안의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 후 15일 이내에 평가 결과에 따른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게 되며, 이후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新安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광명-서울 여의도 구간과 화성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구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43.6km, 총사업비 3조3천895억 원(2013년 불변가격 기준) 규모로 추진된다.

◇ 문의 : 안산시 교통정책과 (031-481-2958)



안산시 상록구 월피 파출소 진다현 어르신 "3층까지 업어 준 경찰관들, 고마워요"



어두운 밤길을 걷게 되면 멀리서 불을 밝히며 다가오는 순찰차가 그렇게 반갑고 든든할 수가 없다. 30년 넘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진다현(월피동) 할머니. 어르신에게 월피파출소(소장 허점욱) 경찰관들은 절망의 어둠을 헤치고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소중한 든든한 존재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시청으로 직접 전화해 취재를 부탁했다.

진다현 할머니는 "나는 다리가 불편해 집에서도 지팡이 없이는 거동을 못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마트도 가야하고 병원도 가야하고 좋아하는 공부도 하고 싶고... 그동안 하모니콜 장애인 차량지원서비스로 다녔는데, 지난겨울 수술을 받은 후로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어떻게든 내려가긴 해도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기 싫어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지내니 우울증도 생기고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지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차량지원은 되는데 업어서 계단을 이동해주는 지원은 없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전화해 사정을 말했더니 흔쾌히 경찰관이 와서 나를 업고 계단을 올라와 주셨어요. 정말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매번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직접 집을 찾아가 보니 다세대주택 3층인 할머니 집 계단은 일반인이 오르기에 유난히 높고 가팔랐다.

취재를 위해 만난 허점욱 소장과 소속 경찰관들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허 소장은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파출소 경찰관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미안함 마음 갖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범죄를 막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주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네에 홀로 지내는 어르신도 많아서 수시로 순찰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이웃은 관련 기관을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월피파출소 경찰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지역에 강력범죄가 발생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작은 도움을 드렸는데 큰 관심을 받게 됐다."며 한사코 취재를 쑥스러워하는 월피파출소 경찰관들의 환한 미소가 봄이어서 그런지 유난히 따뜻하고 화사했다.

◇ 문의 : 월피파출소(031-414-8112)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꽃을 품은 4월 꽃으로 다시 피는 세월호

1000일이라는 긴 시간, 하염없이 보내지 않았고, 속절없이 기다리지도 않았다.
간절히 원했고 끊임없이 소리쳤다. “사람이 먼저”라고, “찾지 못한 이들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세월호가 다시 떠올랐다. 슬한 역경을 극복하고 물에 올랐다. 참사가 난 지 3년이나 지나서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 비로소 이제 시작이다. 여전히 우리가 건너야 할 바다는 넓고, 함께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이 진정으로 그들의 시린 가슴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기억하라! 그리고 함께 하라! 그런 봄이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봄이다.
4월을 기억하는, 4월과 함께 하는 안산에, 그들의 슬픈 이야기가, 희망으로 펼쳐지길.



4월, 기억하고 함께하는 봄



3주기 안산... 청소년과 함께, 한 달 동안, 다양하게

세월호가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던 2017년 봄, 안산은 세 번째 4월 16일을 맞는다. 1,095일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9명의 미수습자들이 돌아오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세 번째 봄을 맞는 안산은 '기억하고 함께하는 봄'이란 주제로 4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세월호 참사 3주기 안산지역 준비위원회 세 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과 416가족협의회가 함께 준비했다. 올해 가장 주목할 점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안산에서만 250명의 청소년이 희생됐고, 70여 명의 생존학생들이 고통스런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만큼, 이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다.

안산고교회장단연합 코아(COA)가 주최하는 세월호 3주기 청소년 추모문화제는 '세월이 지나도 그 세월만은 잊지 않도록'이란 슬로건으로 4월 15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추모제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교복이나 학생증을 지참하길 권하며, 당일 사전행사로 오후 4시 30분부터 행진도 진행될 예정이다.

'가자 416버스, 김제동과 함께하는 청소년만민공동회'는 세상을 향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4월 16일 오전 11시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그동안 학교와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 청소년들의 시각과 생각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기억을 춤과 랩, 노래로 표현하는 '익스프레스 원스 메모리(Express one's memory)' 대회가 4월 15일 오후 7시 30분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고, 세월호 참사와 리본에 대한 기억을 회화로 표현한 '416청소년 추모회화전'은 4월 16일 화랑유원지 일대에서 하루 종일 전시된다.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은 4월 16일 오후 3시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열리며, 사전행사로 오후 1시부터 참가자들이 함께 안산지역 곳곳에서 행진을 하게 된다. 또, 당일 화랑유원지 내 소공연장 주변에서는 '일상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추모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 전시와 거리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416안전공원 상상공모전', '416청소년 추모회화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꽃 사진 보내기 및 꽃 접기 행사, '벽을 만지다, 벽을 녹이다' 퍼포먼스, 버스킹(busking, 거리공연), 거리강연도 준비돼 있다.



안산이 무서웠던 엄마들이 조금은 따뜻해진 순간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이 지난 4일과 5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그와 그녀의 옷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가족들의 삶을 유쾌한 풍자로 담아낸 옴니버스

416가족극단 연극 '그와 그녀의 옷장'

(omnibus, 하나의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식)극이다. "난생 처음으로 연극을 해봤다."는 세월호 엄마들이 대학로와 광화문 등 전국을 다니며 지금까지 24회의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작품 자체가 코믹극이다 보니 객석 곳곳에서 웃음이 계속 터져 나오지만, 세월호 가족들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대사에서 아픔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2장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하는 대사. "집에 가자. 내 새끼" 이 말이 나오자 배우들뿐만 아니라 관객 모두가 숨죽이고 눈물을 흘린다. 팽목항에서 그 말을 수 없이 되

었을 가족들을 생각하는 순간, 작은 공연장은 파스한 온기를 품은 피난처가 됐다. 연극이 끝난 후, 7명의 세월호 엄마들이 무대에 나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했다. "어떤 곳보다 안산에서 공연하는 것이 떨리고 긴



장됐다.”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관객들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동수 엄마 김춘자 씨는 “저희 반은 33명 중 32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물어볼 데가 없다. 이번에 목포신항에 갔는데, 녹슨 배가 우리 아이들이랑 너무 똑같은 모습이어서 많이 울었다. 아직 아이를 보지 못한 가족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드실 거다. 9명의 미수습자들을 빨리 찾으면 좋겠다.”

예진 엄마 박유신 씨는 “안산에서 25년 이상 살면서 너무

좋았다. 그런데 참사 후 함께 울어주셨던 분들이 언론을 통해 저희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대기피증 비슷한 게 생겼다. 하지만 지금도 안산이 좋다. 무섭지만 좋다. 안산에서 나고 자란 우리 아이 흔적이 여겨지기 흠어져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 시민들이 엄마 마음으로, 이모 삼촌 마음으로 보듬어주셨으면 좋겠다. 끝까지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안산시민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수인 엄마가 “안산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안산 분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할 때, 배우들과 관객들 모두 눈시울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에 함께 부르던 ‘우리가 너희의 엄마다’라는 노래 가사처럼, 3년 전 중앙동 거리 어디에선가 지나쳤을 옛된 얼굴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세월호’를 모티브로 창작된 연극작품들이 초청된 4월 연극제는 4월19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세월호 가족 꽃잎 편지 ‘너희를 담은 시간’展



엄마 아빠에게 남은 유일한 소원은 내 아이를 ‘꿈에서라도’ ‘단 한번만이라도’ 안아보는 것. 꽃 누르미 작품 ‘그립고 그립고 그리운’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상상할 수 없는 감정들이 일렁인다. 너무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다 어느덧 파란

물로 변해버린 엄마가 꽃으로 가득한 아이를 품에 꼭 안는다.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 부모는 꽃으로 돌아온 아이를 두 팔에 가득 품고 노란빛 눈물을 흘린다. 물에 젖은 아이를 으스스하게 품에 안았던 마지막 포옹을 떠올리며 엄마는 말한다. “톡 건드리며 너와 얘기하고 싶다. 꼭신꼭신 네 뺨살 맞대 꼭 안아주고 싶다.” 가장 행복한 그림이자 가장 아픈 그림이다.

경기도미술관 1층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전시회 ‘너희를 담은 시간’전이 5월 7일까지 열린다. 4·16희생자 가족들이 그린 아이들의 모습과 편지를 담아 제작한 꽃누르미(압화) 작품 150여점이 전시된다.

꽃잎 하나하나마다 말 못할 그리움이 담긴 그림들을 부모님들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한다.

미처 아이에게 건네지 못한 말, 스무 살이 되면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 배고팠을 아이들에게 지어주고 싶었던

따뜻한 밥 한 끼, 그 모든 회한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픈’ 꽃잎에 차곡차곡 담겼다.

이번 전시는 작품마다 부모들이 정성스럽게 쓴 글과 아이들에게 쓴 편지를 볼 수 있다. 하나하나 글을 천천히 읽으며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각양각색 아름다운 꽃처럼 빛났던 한 아이 한 아이의 삶과 엄마 아빠들의 사무친 그리움을 미약하게나마 헤아려보게 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2016년 전시 이후부터 제작된 ‘꽃마중’의 새로운 단체작품도 만나 볼 수 있다.故김관홍 참수사를 그린 작품으로, 팽목항 바다를 수많은 꽃잎으로 표현하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부르는 ‘집에 가자’. 가장 참혹했던 시간들을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으로 애써 어루만지던 유가족들의 끝없는 이야기들이 작품마다 웅성댄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엄마들과 함께하는 꽃누르미 명화 책갈피 만들기 체험 활동도 진행된다.

다시 새로운 시작... ‘봄을 외치다’

여전히 쌀쌀한 날씨에 몸이 움츠러 들던 4월의 첫째 날, 안산문화광장에서 세 번째 4·16을 기억하고 함께 하는 봄선포 문화제가 열렸다. 거짓말처럼 많은 이들이 기다려왔던 세월호가 인양돼 육지에 도착하고, 탄핵된 전 대통령이 구속되던 바로 다음날이었다. 봄이 훌쩍 다가온 날, 안산은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4월의 봄을 열었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시민 600여 명이 촛불을 들고 마음을 모았다. 4월의 봄을 맞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했다. 그들은 ‘안전한 나라’,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등 다양한 소망을 들려주었다. 이어 노래패 ‘우리나라’와 그룹 ‘두 번째 달’, 안산지역 중창단 ‘안젤노’가 노래와 연주로 4월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연대와 희망을 전했다. 가수 이은미 씨도 무대에 올라 세월호 가족과 안산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성빈 엄마 김미현(416가족협의회 추모분과장) 씨는 “여러분들 덕분에 3년 만에 세월호가 인양돼 목포신항에 접안했다.”며 “막상 정말 작은 힘이라고 생각했던 촛불의 힘으

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며, 앞으로 좀 더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수습자 허다운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의 간절한 목소리도 영상을 통해 전달됐다. “아이를 가족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견디고 또 견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윤이, 은하, 영인이, 현철이, 양승진·고창석 선생님, 어린 혁규, 권재근·이영숙님이 세월호 속에서 지금도 찾아달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먼저 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국회의원도 무대에 올랐다. “참사와 관련된 수많은 진상규명 과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묻혀있고, 추모와 관련된 국가의 노력도 아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세월호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순이 응축해서 발생했던 참사 중의 참사다. 이후 우리사회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했는데, 정말 이제부터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할 때다. 힘내주셨으면 좋겠다.”



416안산시민연대 이재호 상임대표와 ‘엄마의 노란손수건’ 정세경 대표의 ‘세 번째 봄 안산시민 4월의 약속문’도 낭독됐다. “세월호는 녹슬었지만 우리의 기억은 녹슬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우리가 할 일은 이 기억을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04명의 송고한 죽음을 사회적으로 애도하고 역사적으로 승화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안산시민들은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행동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글 ·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2017 안산 재활용 나눔장터 '개장'

“필요 없는 물건, 함께 나누며 지구 환경 생각해요!”



왔어요.”라며 활짝 웃었다.

안산시와 안산자원순환연대가 함께하는 안산 재활용 나눔장터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네 번째 토요일(오전 10시~오후 3시)마다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다. 누구나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고 다양한 공연과 각종 체험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에 맞게 폐가전제품, 폐건전지, 우유팩을 가져오면 친환경 물품을 선물로 주기도 한다.

재활용 판매를 원하는 참가자는 신분증과 돛자리를 지참하고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지만, 전문 상인은 장터에 참여할 수 없다. 당연히 새 물건도 판매할 수 없다. 총 50종 이하의 재활용 물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해가 갈수록 장터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재미까지 더해 점점 많은 시민들이 장터를 찾고 있는 것이다. 7월은 휴장한다.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10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

반가운 봄과 함께 2017 안산 재활용 나눔장터가 시작됐다. 지난 3월 25일(토), 올해 첫 장터가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렸다. 햇살은 좋아도 꽃샘추위가 찾아와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

김효정(초지동) 씨는 “아이들이 쑥쑥 크니 신발을 자주 사기가 아까웠는데, 맘에 드는 아이 신발과 옷을 샀다. 파는 분의 아이가 입던 것들이라 애착을 갖고 파는 모습이 좋았다. 장터가 열릴 때마다 자주 오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판매자도 간간이 보였다. “이제 안 쓰는 딱지와 장난감을 팔러왔다.”는 김성현(10세) 어린이는 “나에게는 필요 없는 장난감을 팔아서 새로운 장난감을 사려고 엄마와 함께

- ◆ 장소: 안산문화광장 NC백화점 앞
- ◆ 일시: 3월~10월 매월 네 번째 토요일(7월은 휴장) 오전 10시~오후 3시
- ◆ 문의: 안산환경운동연합(031-486-5105)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음악회 ‘울림’ 열린다



5월 3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불교문화와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봉축음악회가 4월 22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안산시민 모두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며 마련되는 봉축음악회는 안산시 주최로 사단법인 안산시 불교연합회와 안산문화원이 주관하고 불교TV(BTN)가 후원한다. 안산시불교연합회장 승현스님은 “2017년 희망·나눔의 빛 울림 페스티벌”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

대하오니 함께 자리해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축제는 오후 4시부터 시작해 저녁 9시 30분까지 열린다. 연꽃잎차 등 전통차와 사찰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문화 나눔 행사가 봉축 법요식, 제등 행렬과 함께 메인 행사로 진행된다. 제등 행렬을 위해 축제에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연등(燃燈)을 제공한다. 연등에는 등불을 밝혀 어리석음과 무명을 떨쳐내라는 부처의 가르침이 담겨있다.

7시 30분 울림 페스티벌 봉축음악회에 앞서 다문화 팀의 축하 공연도 마련됐다. 불교문화권인 다른 나라들의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무대이다. 봉축음악회에는 홍진영, 타이미, 아웃사이드, 박구윤, 선경, 이윤선이 출연해 안산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메인 행사와 함께 부대행사로 오과·팔과 체험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오색실 매듭 등 각종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오는 4월 22일 가족·친구·이웃과 함께 축제에 참가해 등불을 밝혀주고 마음속 무명을 떨쳐내 보자.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798)
안산문화원 (031-415-0041)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 노동인권지킴이 발족



현장 조사 및 노동인권 홍보 활동 전개

안산시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안산시 노동인권지킴이 사업단’이 4월 11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족식에는 노동인권지킴이 10명과 사업자문위원 등 25명이 참석, 17명이 위촉장을 받았으며, 발족과 함께 ‘안산시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개시했다.

안산시 노동인권지킴이는 오는 9월까지 5개월 동안 노동 현장조사와 노동인권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알바지킴이, 우리동네 노동인권지킴이, 아파트 비정규직 노동인권지킴이, 불법파견 해소 캠페인, 사회적 협약 추진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031-481-2282)



안산시평생학습관



'톡톡 인문학', 철학을 이야기하다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3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올 상반기 인문학아카데미 '톡톡 인문학'을 운영한다. '톡톡' 건드린다는 의미의 톡톡 인문학은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계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대화와 토론으로 소통하며, 인문학적 지식의 접근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시 쓰는 희망의 교육' 저자이자 EBS커리어 자문위원이며 ㈜아레테교육연구소 대표인 이요철 강사를 만나 인문학과 철학에 대해 들었다.

Q. 몇 년 전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인문학은 어떤 학문인가?

인문학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실존과 사건의 연속인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될 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흔들림 없이 최선의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그 가운데 더 넓고 깊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라 할 수 있다.

Q. 재미없고 어려운 데다 먹고 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되던 인문학이 주목받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과 미처 대비하지 못한 미래를 마주하게 된다. 예상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권태, 우울, 절망 등이 마음속을 파고든다. 이런 극도의 긴장과 위기가 지속되는 상태를 아포리아라고 한다. 그리스어 아포리아는 '막다른 길', '문제는 있으나 답이 없음'을 가리킨다.

이런 때일수록 인문학은 빛을 발한다. 왜냐하면 인류가 의지해 온 과학기술과 문명이 빚어낸 혼돈은 우리의 지향점이 다시 인간과 삶의 본질을 향할 때 해소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루프 옌센'은 세 번의 시대적 지각변동으로 산업사회, 정보 사회, 꿈 사회(Dream Society)를 언급했다. 드림 소사이어티의 핵심적인 경제 가치는 '감정'과 '경험'이다. 바로 이 감정과 경험을 파고드는 학문이 인문학이고 인문학은 실생활의 풍요, 즉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러기에 인문학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Q. '철학'이라는 학문도 그렇지만 공자, 소크라테스, 니체 등 이름만으로도 무척 어렵게 느껴진다. 강의를 통해 전하고자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철학'하면 사람들이 일단 피하고 본다.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 철학자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최고의 현자들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다. 이들도 우리처럼 후회와 절망, 실수와 실패 그리고 고통과 불안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시대의 혼돈을 거슬러 영원한 진리를 설파하고 실천하는 인간 본연의 존재가치를 한 술의 밥과 맞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운명이 휘두르는 횡포 앞에 무너지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며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잇따른 비극을 초월하여 모든 사건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정과 갈망으로 승화시켰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열정과 갈망을 품고 최선의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꿈 꿀 수 있도록 돕는 멋진 인생을 사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Q. 강의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이나 안산시민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2015년 여름부터 청소년 인문학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열면서 반신반의했던 우려와 달리 아이들은 호메로스, 소크라테스, 공자 등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세 시간씩 들었고, 결석 없이 모두가 과정을 수료했다.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중1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연령도 다양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들도 '나는(인간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올 여름에도 청소년 강좌가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이때 가능한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함께 인생의 본질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또한 주말이나 퇴근 후 가족들이 함께 인간과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정기적인 철학 강의가 시민대학의 형태로 개설되면 좋겠다. 안산 시민들이 인문학을 통해 함께 웃고 울며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기 바란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책 읽는 안산 / 4월 첫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도서관 행사와 함께 읽기!』



내 단짝 친구는 누굴까요?

저자 마리 아네스 고드라 / 출판사 한림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닮은 쌍둥이 남매 휴이와 듀이, 휴이와 듀이에게 생각의 날개를 달아주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간다.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귀여운 카툰과 이야기로 아이가 친구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해 보고,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가는 길이 내 길이다

저자 김창남 외 / 출판사 한울

책에는 주어진 틀을 강요하는 사회의 논리와는 다른,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자기만의 길을 걸어온 아홉 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약대를 나왔지만 안정된 삶을 버리고 연극에 뛰어든 유인택, '카이힐맨' 캐릭터를 만든 잘나가는 산업디자이너였지만, 어느 날 훌쩍 티베트로 떠나 삶 디자인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나가는 박활민 등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써 삶을 긍정하는 자세, 지금 가는 이 길이 내 길이라는 그들의 확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저자 신정근 / 출판사 21세기북스

선택, 결단, 이해, 희생, 귀감, 실력, 사명, 운명, 배움, 용기, 자기긍정, 관용, 사랑, 지혜, 믿음 등의 주제를 구체적인 문제에서 시작하여 추상적인 가치로 끝맺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에 관련된 <논어>의 원문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강조하는 핵심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2017안산국제거리극축제, 5월 5일 개막

새 장르 포함 국제교류작 · 도시매니아 등 70편 선봬

2017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5월 5일부터 7일까지 안산문화광장과 안산 일대에서 개최된다. '안산표' 신작과 국내외 우수작, 거리예술 신흥강자들의 작품이 골고루 섞여있는 이번 축제는 개·폐막작을 비롯해 안산리서치 3편, 공식참가작 11편, 국제교류작 3편, 거리예술 플랫폼 7편, 광대의 도시 17편, 도시 매니아 20여 편 등 총 70여 편이 참여한다. 특히 서커스, 무용 등을 넘어 음악, 산책형 연극 등 새로운 장르가 포함돼 한층 차별화된 무대를 예고한다.

안산 이야기를 담아낸 개·폐막작

올해는 개·폐막작을 자체 제작했다. 개막작인 창작그룹 노니의 '안안녕2017'은 길놀이 형태의 시민참여형 공연으로, 퍼포먼스 규모와 시민참여를 대폭 늘렸다. 폐막작은 서울에 대가 참여해 화려한 불꽃을 선보인다. 산학협력 프로젝트로는 첫 시도라 더욱 의미가 있다. '응옥의 패턴'은 세월호 사건에서 배제된 이주민 여성 '응옥(가명)'의 이야기로 이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경계의 시선을 무용과 시각예술로 표현한다. 일본 후지와라 치카라의 '엔게키 퀘스트 @안산'은 안산이라는 도시를 이방인으로서 방랑하며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프로젝트다. '안안녕2017'의 윤종연 예술감독은 "지역 이야기에서 다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산리서치는 특히 이러한 고민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공식참가작 11편 중 해외작 4편은 거리예술 트렌드를, 국내작 7편은 거리예술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올해 세 번째로 참여하는 '안산순례길2017'은 예술가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사유하기 위해 안산이라는 도시를 함께 걷는 프로그래머, 호주 랜터스 씨어터가 공동 제작하는 '낮선 이웃들'은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낮선 거리를 다니며 얻은 경험을 공유한다. 또 '마사지사'는 워크숍을 통해 마사지사로 분한 시민 공연자들이 거리의 시민을 손님으로 맞는 공동체 퍼포먼스다. 영화 상영과 함께 창작곡을 연주하는 '무성영화, 집시음악에 취하다', 차력과 굿 음악을 선보이는 '음악차력극 굿차', 유지영의 '신체부위의 명칭에 대한 의문' 등도 기대된다. 해외작으로 이탈리아의 고공줄타기 '길 위에서'가 국내 초연되며, 벨기에 서커스 '우리끼리'는 폴대가 세워진 원형 무대에서 펼쳐진다. 마카오의 '묘지에서 소풍을'은 연극적 요소가 녹아 들어있는 독특한 성격의 라이브 콘서트며, 호주 '스탠스, 8시간'은 9명의 무용수가 8시간에 걸쳐 저항의 몸짓을 펼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영국 스톡턴 국제강변축제와 교류, 3편의 작품이 안산을 찾는다.

그럼이며, 호주 랜터스 씨어터가 공동 제작하는 '낮선 이웃들'은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낮선 거리를 다니며 얻은 경험을 공유한다. 또 '마사지사'는 워크숍을 통해 마사지사로 분한 시민 공연자들이 거리의 시민을 손님으로 맞는 공동체 퍼포먼스다. 영화 상영과 함께 창작곡을 연주하는 '무성영화, 집시음악에 취하다', 차력과 굿 음악을 선보이는 '음악차력극 굿차', 유지영의 '신체부위의 명칭에 대한 의문' 등도 기대된다. 해외작으로 이탈리아의 고공줄타기 '길 위에서'가 국내 초연되며, 벨기에 서커스 '우리끼리'는 폴대가 세워진 원형 무대에서 펼쳐진다. 마카오의 '묘지에서 소풍을'은 연극적 요소가 녹아 들어있는 독특한 성격의 라이브 콘서트며, 호주 '스탠스, 8시간'은 9명의 무용수가 8시간에 걸쳐 저항의 몸짓을 펼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영국 스톡턴 국제강변축제와 교류, 3편의 작품이 안산을 찾는다.

축제는 성장한다

거리예술플랫폼 7개 팀 중 국내팀은 '유기농음악극단', '젼 댄스 컴퍼니', '우주마인드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해외팀으로는 말레이시아가 참여한다. '광대의 도시'에는 국내외 20개 팀이 참가한다. 올해 열세 번째를 맞는 축제는 어느 때와 달리 특정 슬로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시민이 어려운 메시지에 소외되지 않고, 축제 자체에 몰입하게 돕기 위해서다. 또한 축제의 중심무대인 광장을 확장시킨 점이 돋보인다. 안산문화광장을 벗어나 시민 삶터 깊숙이 들어가려는 시도로, 원곡동을 포함해 안산호수공원, 갈대습지공원, 상록수역 등에서 펼쳐진다. 터미널을 오가는 축제버스는 안산문화광장과 도시 외곽을 잇는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031-481-0522)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문화재단,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예술열차 안산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정차



안산문화재단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안산시를 지나는 4호선 전철 구간 여섯 개 역사에서 '예술열차 안산선'을 운영한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전철역 일대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열어, 공연장을 찾지 않더라도 수준 높은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단순히 교통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됐던 전철역이 예술 공간으로 변하는 경험이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첫 번째 정차역 '청년의 한대앞역'

지난 3월 27일, 한대앞역에 '청년'이라는 콘셉트로 예술열차가 정차했다. 한양대와 서울예대 예술 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으로 참여했으며,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광장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예술가들이 '아트마켓'을 펼쳤다. 손바느질로 만든 액세서리와 인테리어 소품들, 감성이 담긴 손글씨 가방, 손으로 짠 가죽공예 등등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옆집 청년이 장가가기를 포기하고 만든 영화'라는 부제가 달린 천막극장에서는 서울예대 학생들이 만든 독립영화가 상영됐다. 김성하 학생(한양대3)은 "평소 삭막하던 전철역에 공연장도 생기고 이런 행사가 열리니 활기가 넘치네요. 에코백(eco bag) 만들기 체험도 하고, 친구는 중고도서 부스에서 평소 눈여겨보던 책도 샀어요."라고 했다. 곧이어 최근 역 주행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신현희와 김루트'가 깜찍한 울동과 목소리로 '오빠야'를 부르자 관객들은 환호했다. 한양대 아카펠라 동아리 '비플랫'과 즐겁게 유저 밴드 '바나나', 서울예대 '뮤트'의 뮤지컬 공연이 이어졌고, 스트리트 댄스팀 '오리지널 마인드(Original Mind)'의 비보잉에 시민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봄꽃처럼 환하게 웃었다.

예술열차가 풀어놓을 안산 이야기

한대앞역을 출발한 예술열차는 전철역에 따라 색다른 콘셉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다음 정차역인 반월역(4/26, 9/27)의 주인공은 도시농부로 4월에는 도시 농업과 가드닝(gardening)을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는 설치미술 프로젝트를, 9월에는 이들이 키워낸 생산품을 판매하는 마켓이 열린다. 중앙역(5/31)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공연, 그래피티 아티스트와 협력한 참여형 워크숍이 진행된다. 상록수역(6/28, 10/25)은 6월, '허브(공존)'이라는 주제로 지역 작가들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전철역 경관을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며, 10월에는 거리극 참여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세월호의 아픔을 간직한 고잔역(7/29)에서는 '기억'이라는 주제로, 안산역(8/30)은 '다문화'를 주제로 안산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031-481-0522)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의회, '소통 콘서트' '오카리나' 공연으로 '시민과 통하다'



4월10일 제238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지역 연주팀인 '소리향 오카리나 앙상블'이 공연하는 모습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의회 본회의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월 16일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초지동 통기타 동아리 '풀땀' 회원들이 멋진 기타 선율을 선보였다. 이는 1991년 안산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로, 타 시군 의회에서도 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시도다. 지난 4월 10일에도 제238회 임시회 개회 공연으로 국내 정상급 오카리나 솔리스트로 구성된 '소리향 오카리나' 팀이 7중주 앙상블을 선사했다. 소통 콘서트 개최를 제안한 이민근 의장은 "사회 전 분야에서 '소통'과 '공감'이 화두인 요즘 지방정치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권위도 과감히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의회는 본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의 전 10분 내외로 공연을 펼치고, 출연 대상도 지역 동아리 및 예술단체로 한정했다. 풀땀의 신민우 대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처음 시도하는 공연이고 그 첫 주자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풀땀은 '동해의 꿈'과 '바위섬',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등 3곡을 들려주며 빼어난 기타 연주와 노래 솜씨를 뽐냈다. 당시 본회의를 방청한 은빛의정봉사단의 한 회원은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활기차고 친숙한 공연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임시회 4월 10~28일, 행감은 6월 8~16일



안산시의회가 4일 제237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등을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운영위의 한 장면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4일 제237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동규)를 열어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등을 확정했다. 의회는 이날 의회 제2상임위원회실에서 김동규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 따르면 제238회 임시회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개최되며, 이 기간 동안 본회의 3회, 상임위원회 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회를 열어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9건을 심의하게 된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은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완료하기로 했다. 제2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는 정승현, 신성철 의원이 선임됐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다수의 안건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는만큼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h1>04 Culture Calendar</h1> <p>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단원미술관(031-481-0505)</p>						
<p>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전 <소장품, 미술관의 얼굴> 일시 2017.2.16~2017.4.16 장소 경기도미술관</p> <p>단원김홍도의거리풍경 일시 2016.12.6~ 장소 단원미술관 2관</p>	<p>연극 <4월 연극제> 일시 04-04(화) ~ 04-19(수) 시간 화,수,금요일 오후7시 30분 토요일 오후4시 장소 별무리극장</p>	<p>다원 <안산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안산시립국악단 과천시립교향악단 교류음악회> 일시 04-05(수), 19:30 장소 해돋이극장</p>	<p>연극 <네버랜드> 일시 04-01(토) ~ 02(일) 시간 4.1.(토) 16:00 19:00 4.2.(일) 15:00 장소 별무리극장</p>	<p>연극 <4월 연극제> 일시 04-04(화) ~ 04-19(수) 시간 화,수,금요일 오후7시 30분 토요일 오후4시 장소 별무리극장</p>	<p>클래식 <피아포네앙상블창단연주회> 일시 04-11(화) 시간 19:30 장소 달맞이극장</p>	<p>콘서트 <장사의 소리판 <꽃인듯, 눈물인듯>> 일시 04-14(금), 오후8시 장소 해돋이극장</p>
16	17	18	19	20	21	22
23/30	24	<p>기타 <<핸드쉐도우 판타지 ANIMARE>> 일시 04-19(수)~04-20(목) 시간 am 10시30분, pm2시 장소 달맞이극장</p>	<p>정기연주회<한국가곡의 밤> 일시 04.20(목) 시간 오후 7시 30분 장소 해돋이극장</p>	<p>뮤지컬 <번개맨과 신비의 섬> 일시 04-29(토)~04-30(일) 시간 4.29.(토) 11:00, 14:00, 16:30 4.30.(일) 11:00, 14:00 장소 해돋이극장</p>		

특별
기고

허위 신고로 낭비되는 국민 혈세, "멈춰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통해 강력 대응한다



최근 6년 동안 경찰서에 허위 신고로 접수된 것이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로 인해 촌음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 112 허위 신고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11월 까지 총 3만8천385건에 이른다. 하지만, 허위신고를 한 사람 중 단 2천401명만 형사 입건 처벌을 받았으며, 9천949명은 경범죄를 적용해 벌금형에 그쳤다.

허위 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사안이 경미한 경범죄의 경우도 2013년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 허위신고자에게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12 허위 신고로 구속된 사람은 91명에 불과하다.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경찰력과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못된 행위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112 허위 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에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장난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처벌함은 물론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112 긴급 전화에 대한 올바른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단위 : 건)

연도	허위 신고	계	허위신고처벌현황							손해 배상 청구
			형사입건			경범죄처벌(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11년	10,861	1,382	27	2	25	1,355	1,313	25	17	0
12년	10,465	1,141	57	6	51	1,084	1,028	43	13	0
13년	7,504	1,837	188	7	181	1,694	1,571	52	26	40
14년	2,350	1,913	478	30	448	1,435	1,384	42	9	85
15년	2,927	2,709	757	22	735	1,952	1,923	22	7	52
16.11	4,278	3,324	894	24	870	2,429	2,407	12	10	40
총계	38,385	12,306	2,401	91	2,310	9,949	9,626	196	82	217

최근 6년간 112 허위신고 현황, 처벌 현황(자료출처 -경찰청)



● 안산단원경찰서 경위 전영태

독자
기고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나는 꿈없이 걷는다.

10년 만에 다시 안산으로 이사를 왔다. 불과 10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사는 고잔동의 환경이 바뀐 듯하다. 예전보다 공기는 많이 맑아졌고 공단의 악취 냄새도 많이 줄어 든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가족과 함께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화정천의 산책로이다. 집 주변에 이렇게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일 것이다.

평소 격한 운동을 좋아하던 내가 걷기의 매력에 빠진 것은 어느 날 불현 듯 찾아온 통증 때문이었다. 10여 년 전 퇴근길, 전철 안에서 처음 느껴본 오른쪽 종아리 부분의 끔찍한 통증! 그 통증은 이른바 허리디스크 증상이었다. 여러 처방을 찾은 끝에 내린 결론은, 하루 한두 시간씩 걷기. 그 후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걷기는 건강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나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선물한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



우선, 걷기를 통해 나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었다. 숨을 가다듬고 몸의 감각들을 느끼면서 걷는 것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했고, 나의 진짜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했다. 복잡한 일상 속 생각들이 단순화되고, 쌓였던 상처들도 치유됐다. 둘째, 자연의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자연과 하나 되어 교감하는 어떤 내밀함을 체험할 수 있었고, 때가 되면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는 꽃이나 매번 새 옷

으로 갈아입는 나무들의 모습에서, 때에 맞추어 물러날 줄 알고 변화하는 겸양의 덕도 덩으로 배울 수 있었다.

셋째, 좋은 잠 흔히 말하는 꿀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퇴근 후 한두 시간의 걷기 다음에 허락되는 잠은 참으로 꿀맛이었다. 선천적으로 잠이 많은 나에게 잠의 양보다 숙면이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넷째, 기억력 유지에 좋은 효과를 본 듯하다. 알코올로 망가진 기억력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름이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고, 심지어 딸과 아들의 이름도 바꾸어 부르는 일이 종종 발생해 참으로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걷기를 시작한 후부터 조금씩 나아진 걸 보면 기억력 유지에는 걷기가 명약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언제부턴가 잠자기 전 침대에서 아이들, 가족, 직장 등 이런저런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는 습관이 생겼는데, 여러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아내와 함께 걸었던 많은 시간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제 추위도 한걸음 물러나고 걷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안산의 가장 좋은 점은 집에서 10분만 나오면 보석 같은 산책코스가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걷기를 통해 인생의 여유를 즐길 줄 알고, 자신을 행복 속으로 인도하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

오늘도 아내와 함께 화정천을 걷는 행복한 시간이 자꾸만 기다려진다.

● 김현곤(단원구 고잔동)



소식通

도 '일하는 청년 통장' 참가자 모집

월 10만 원 3년 저축하면 천만 원 지원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21일까지 인터넷(경기도일자리재단 www.gif.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3월 27일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현재 일을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대상이다. 경기도 전체 5천 명 중, 안산시는 400명이 배당됐다.

'일하는 청년 통장'은 참여자가 3년 동안 근로를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 기부금을 합쳐 약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5월 15일까지 신청자들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5월 25일까지 서류심사와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 공고된다.

◇ 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 (031-481-2377)
경기도 콜센터 (031-120)



기후변화시대 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년 안산그린리더스클럽 아카데미 신규 회원 모집



- 교육명 : 안산그린리더스클럽 아카데미
- 모집공고 : 2017년 3월 27일(월) ~ 4월 14일(금)
- 교육일 : 매주 화요일 주1회 (교육일정 참고)
- 대상
 - 안산시 소재 기업 CEO, CTO, 임원 및 연구소장 등
 - 안산시 소재 정부출연기관 임원
 - 대표이사가 수장을 인정한 자
- 교육내용
 -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및 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방안
 - 중소기업 화학물질 사고대응 및 사례
 - 정부 환경규제 및 법적 대응 방향
 - 접수기간 : 2017. 4. 14(금) 까지
 - 지원방법 : 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 / 팩스 접수
 - 우 편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20-96 안산갈대습지공원 내 안산환경재단
 - 이메일 : lim3766@eg21.kr, 팩스 : 031-599-9400
 - 수강료 : 클럽회원 가입비용 50만 원에 포함
 - 문의처 : 031-599-9409 (기후변화대응팀 임관형 대리)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



① 주택연금
만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생활비(연금)를 지급받는 제도
(기준일자: 2017.03.06.)

- ◆ 가입요건
 - 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60세 이상
 - 대상주택 : 9억 원 이하의 주택(단독주택, 빌라, 연립, 아파트 등)
* 보유 주택수 : 9억 원 이하 1주택자(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 원 이하 다주택자도 가능) 또는 9억 초과 2주택자(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
- ◆ 월지급금 (*17.36 기준, 종신·정액형 기준)
- ◆ 보증료 및 대출금리 등
 -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0~1.5%), 연보증료(연금지급총액의 연0.75~1.0%)
* 연금지급총액 = 연금수령액+보증료+대출이자
 - 대출금리 : 신규COFIX+0.85% (*17.36 기준 2.35%) 또는 3개월CD금리+1.1%
 - 근저당권 설정료(27만5천원), 인지세(50% 본인 부담), 감정평가수수료(필요시)
- ◆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
 - 부부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 등
 - 주택연금 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차액 납부의무 없음.
※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평생 드리는 주택연금이 어르신의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 평생 거주, 평생 지급(선택 시)을 약속합니다.
 - ☞ 세제혜택이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 재산세 25% 감면)
 - ☞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 남으면 상속합니다.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1688-8114)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건강 먹거리

4월

미나리

미나리의 효능

- 식욕 촉진 : 봄의 향기를 가득 담고 있는 미나리는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돋우는 봄철 채소입니다. 향의 근원인 정유 성분은 식욕을 촉진시키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 두철분, 식이섬유 등 영양이 풍부 : 예부터 영양이 풍부하여 주목받던 미나리는 철분, 식이섬유 등이 많아 빈혈이나 변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잎에는 비타민 C가 많아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미나리 고르는 방법

- 녹색이 선명하고 줄기가 너무 굵지 않은 것을 선택합니다.
- 잎 길이가 가지런한 것이 좋습니다.

미나리 보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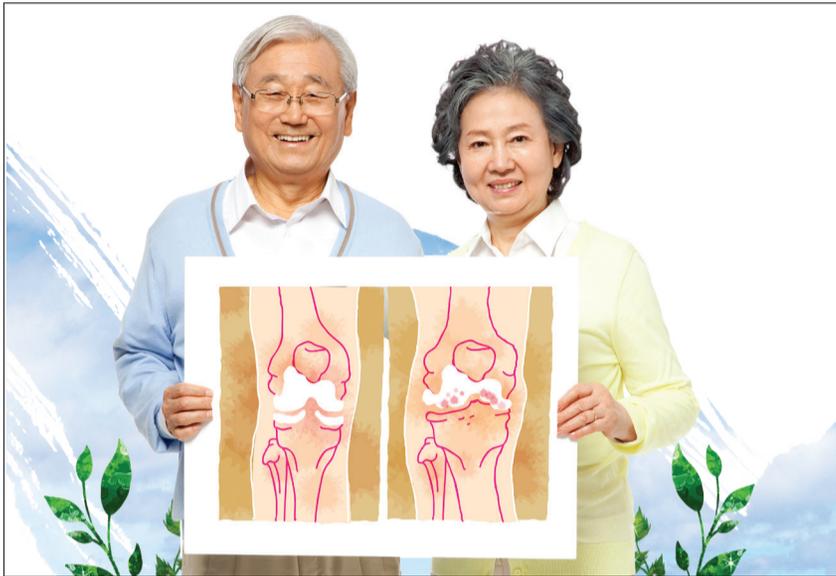
- 신문에 싸서 비닐팩에 넣고 뿌리를 밑으로 세워 냉장 보관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봄철 채소 미나리 안산시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



안산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 만 65세 이상 대상...120만원 한도



무릎이 아파 하루가 다르게 계단 오르내리는 일이 힘들고, 무릎통증은 점점 심해져 병원에 간 이 모 할머니(70·성포동).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걱정이 앞섰다. “무릎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 인공관절을 심어야 한다.”지만 적지 않은 수술비가 어려운 형편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안산시는 수술비가 무서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을 감내해 온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120만 원 한도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진행된다. 안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전국가구 중위소득 50% 이내이며 전문의가 ‘인공관절치환(슬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상이 된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검사와 진료, 수술비 총액 중 법정 본인부담금으로,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 원이 한도이다. 선택 진료비, 간병인 비용 등 비급여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통보받기 전 진행한 수술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등을 첨부해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52) 단원보건소(031-481-3512)
백미란 명예기자_why0218@naver.com

안산시, 결핵 이동검진 실시

중·고생 학생 대상, 새학기부터 10월까지 연1~2회



소모성 질환인 결핵으로부터 미래세대 주인공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결핵검진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1~2회 실시된다.

안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은 단체생활로 결핵에 노출될 위험성 또한 그만큼 높아 연1~2회 학교로 찾아가는 결핵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7일에는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이 상록구에 위치한 경기모바일과학고와 송호고등학교를 찾았다. 이곳 두 학교 학생 2천570명은 학교 운동장에 주차한 이동검진차량에 올라 차례대로 흉부엑스레이 촬영을 받았다. 간단한 예방검진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급우들의 건강까지 지키게 된다.

안산에는 52개 중·고등학교에 6만7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지난해에는 6만여 명의 학생들이 이동검진을 통해 결핵검사를 받았다. 이 중에서 6명의 학생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검진비용은 학교와 시에서 부담한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결핵균은 다른 세균들과는 달리 자연계에서는 살 수 없고 사람의 몸속에서만 살아간다. 우리 몸에는 공기를 통해 들어오지만 모두 발병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고른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할 경우 대부분의 결핵균은 우리 몸의 면역기능에 의해 걸러진다.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과 조기검진이 중요하다. 초기증상이 감기환자와 비슷한 결핵을 주위에 퍼트리지 않으려면 기침이 나올 때 반드시 손으로 입을 가리고 거리에 함부로 침을 뱉지 말아야 한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45)
백미란 명예기자_why0218@naver.com

식중독 세가지만 기억하자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봄, 즐거운 나들이에 나섰다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가지만 기억하세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요리 전, 후로 흐르는 물에 20초 손을 씻고 2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했을 경우 익혀먹고,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참 쉽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17년 건강UP 야간운동교실

- ◇ 운영기간 : 2017. 4. 3. ~ 10. 31.
- ◇ 대 상 : 지역주민 누구나
- ◇ 운영시간과 장소 : e-브라보안산 건강코너 참조(www.bravoansan.net)
- ◇ 접수방법 : 공원에서 수시 접수
- ◇ 내 용 : 에어로빅, 스트레칭, 새천년 건강체조 등
- ◇ 문 의 : 상록수보건소 (031-481-5930)
단원보건소 (031-481-3493)

